

신세계, 광주어등산에 '호남권 최초' 스타필드 건립

3만평 부지·연면적 9만평, 8천억 투자 현지법인 설립 신세계백, '국내 최고의 랜드마크 백화점'으로 리뉴얼

신세계그룹이 광주 광산구 어등산 부지에 호남권 최초의 스타필드 건립을 추진한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쇼핑·문화·레저·엔터에 휴양까지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정통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광주(가칭)'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를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프라퍼티의 경험과 역량을 총 집결해 호남지역 최고의 쇼핑테마파크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프라퍼티가 광주 외곽의 어등산 관광단지를 후보지로 선정한 이유는 넓은 부지에 다양한 체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타필드 광주'는 3만평 부지에 연면적 9만평 규모로 8000여억원을 투자해 쾌적한 구성의 매장에 300여개 이상의 다양한 브랜드와 도심형 워터파크, 체험형 스포츠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스타필드는 광주 현지 법인을 세우고 지역민 우선 채용으로 3만여명 가량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브랜드 입점, 전통시장 지원 상생 프로젝트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지역 특성과 고객 니즈, MZ세대 라이프스타일을 매장 구성에 반영하고, IT기술을 활용한 문화 향유 콘텐츠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쇼핑·근린생활시설, 체험형 콘텐츠, 레저와 휴양이 결합된 초대형 규모의 체류형 복합쇼핑몰을 개발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신세계프라퍼티 임영록 대표는 "스타필드 광주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임은 물론 휴양이 결합된 진정한 체류형 복합쇼핑몰을 개발해 지역 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역량과 노하우를 집결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부지 확정, 마스터 플랜, 행적

절차를 마치고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은 이와함께 기존 광주신세계를 대폭 확장하고 업그레이드해 '국내 최고의 랜드마크 백화점'으로 개발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신세계그룹은 새로 태어나게 될 '광주신세계 Art & Culture Park(아트 앤 컬처 파크)'는 강남점의 '고품격', 센텀시티점의 '매머드급 규모', 대전점의 '복합문화예술공간' 등 전국 각지 지역1번점 매장의 장점들을 결합한 미래형 프리미엄 백화점으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착공하는 백화점은 유명 해외 설계사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건축설계로 광주의 경관을 새롭게 하고 압도적 플라인 브랜드로 쇼핑의 질도 한 단계 높일 전망이다.

광주·호남 지역 최초로 에루사(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가 입점할 예정이며, 현재 지역 유일의 루이비통, 보테가베네타, 생로랑, 몽클레르 등을 포함한 530여개의 브랜드를 2배 가량 확대해 총 1000여개의 브랜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광주신세계 이동훈 대표는 "혁신을 거듭해 온 신세계가 세계 최정상급 강남점의 '럭셔리'에 세계 최대 센텀시티점의 '초대형' 위용을 결합한 광주 지역의 새 랜드마크 개발에 나선다"면서 "차별화된 콘텐츠와 브랜드로 가득 채운 지역민들이 원하는 명소를 가장 빠르게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정승호기자



국내여행 터졌다...해외여행은 '마음만 굴뚝'

컨슈머인사이트, 주례 여행행태 및 계획 조사 분석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억눌려있던 우리 국민들의 국내 여행 심리가 2017년 최고점을 매일 경신하고 있다.

여행 경험도 전고점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반면 해외여행의 경우 제도적 장벽과 무너진 인프라가 걸림돌이 돼 여전히 여행 계획과 실행 모두 바다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매주 500명·연간 2만6000명)'를 통해 소비자에게 지난 3개월 간의 여행 경험과 향후 3개월 내 여행 계획을 묻고 코로나 전후 추이를 비교, 17일 발표했다.

◆3개월 내 국내여행 계획 77%...조사 이후 최고치

올해(7월까지) 조사에서 향후 3개월 내 1박 이상 국내여행 계획이 있다는 응답(계획률)은 77%로 2016년 조사 이후 가장 높았다.

국내 여행 계획률은 코로나 이전(2017~2019년) 70%대 초반에서 지난 2년간 60% 후반대로 하락했다가 올해 들어 가파르게 상승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2월(71%) 이후 매일 2%p 이상씩 꾸준히 상승해 7월에는 84%에 달했다. 가파른 상승세다.

올해(1~7월) 국내 여행을 다녀왔다는 응답(경험률)은 65%였다. 지난해와 2020년의 58%에서 많이 회복됐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인 5월 이후 65%, 69%, 71%로 매일 급상승했다.

컨슈머인사이트는 "여행은 전 국민이 가장 원하는 여가 활동이 되고 있다"며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여행 욕구 폭발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가 영향을 끼쳤고, 여름휴가철을 앞둔 시기적 요인도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이어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감안한 여행·관광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해외여행, 계획 소폭 늘었지만 실행 4%대... '사실상 울스름'

해외여행은 계획을 세운 사람도 다녀온 사람도 매우 드물었다.

해외여행 계획률은 코로나 전 35~37%였으나 코로나 첫해 10%, 이듬해 6%로 떨어졌다.

올해는 계획률이 11%로 다소 늘었지만 코로나 전의 30% 중반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트래블버블 국가 확대,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의무 면제 등 전세계적인 입국 규제 완화가 이뤄지며 1월 6%에서 5월 14%로 여행 계획률이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전세계적인 코로나 재유행과 함께 7월에는 다시 하락했다.

해외여행 경험률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급락한 이후 요지부동이다. 2017~2019년 28% 수준에서 2020년 10%로 떨어지고 작년과 올해는 4%로 쪼그라들었다.

컨슈머인사이트는 "해외여행은 국내 여행처럼 수요가 있어도 바로 공급이 가능하지 않다"며 "해외여행 생태계가 전세계적으로 초도화됐다고 볼 수 있고, 회복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해외여행의 위기...국내 여행 활성화 기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여행은 당일여행과 1박2일의 단기여행이 많았다. 주 교통수단은 승용차로, 이동의 제한이 없으며 숙식을 해결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다. 해외여행에 비해 산업 인프라에 큰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반면 해외여행은 인프라 복구에 긴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컨슈머인사이트는 "코로나 이전 몇 년간 해외여행에 따른 막대한 관광수지 적자가 발생해왔다"며 "현재의 상황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상대로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분석했다.

최이슬기자

"더울 땀 이땀치열" CU, 화끈한 불맛 청양고추잠뽕 출시



CU는 화끈한 국물맛을 강조한 헤이루 청양

청양고추의 칼칼한 매운맛과 중식 고유의 은은한 불맛 구현

고추잠뽕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헤이루 청양고추잠뽕은 고추 명산지인 유명한 충남 청양의 청양고추와 여러 야채로 만든 건더기 불뽕으로 잠뽕 특유의 깊고 진한 맛을 살리고 부추와 오징어 토포까지 넣은 용기면이다. 진한 고기 육수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청양고추의 칼칼한 매운맛과 중식 고유의 은은

한 불맛을 구현했다. 이번 상품은 더위질 수록 매운 상품을 찾는 수요를 공략하기 위해 출시했다. CU에 따르면 매운맛 상품의 전년 대비 매출성장률은 5월 6.8%, 6월 8.2%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7월엔 14.6%로 뛰었고, 이달(1~15일)은 16.7%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이슬비기자

일감은 늘어나는데...조선 빅3 직원수 여전히 '제자리걸음'

조선 3사 직원, 3만395명→3만311명

조선업 인력난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조선 빅3 직원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조선 3사가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의 올해 상반기 기준(6월30일) 직원수는 3만311명으로 1분기(3만395명) 대비 84명 감소했다.

조선 빅3 가운데 현대중공업만 직원수가 늘었고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현대중공업은 1만2759명으로 1분기(1만2625명) 대비 134명 늘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8569명으로 76명 감소했다. 삼성중공업은 142명 줄어 8983명을 기록했다. 최대 감소폭이다.

현대중공업 직원수가 늘어난 것은 조선 3

가 중 올해 유일하게 상반기 공채를 진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3월21일부터 400명 규모의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했다. 연초 선발을 완료한 수시 채용 인원 400여 명을 포함해 올 상반기에만 약 800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공채에 나서지 못했다. 다만 필요한 인력은 경력직 위주로 수시로 채워 나갔다.

이런 가운데 노동 강도 대비 열악한 처우로 조선업계 인력들이 지속 이탈하며 직원수는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조선사들은 지난 2014년 이후 지속된 수주 절벽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업황 회복으로 수주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지만, 원자재가 급등이라는 악재에

여전히 적자 신세다.

실제로 올 2분기 조선 3사는 총 620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상반기로 확대하면 적자 규모는 1조5818억원에 달한다.

조선업 인력 감소는 올 하반기 업계 최대의 우려 사항이다. 통상적으로 선박을 수주해 건조까지는 1년에서 1년 반이 소요된다.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어난 물량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조선업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사태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지난 4월1일 '조선 인력 현황과 양성'을 발표하며 올 9월 조선 현장에서 약 9500명의 생산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6월에는 부족한 인력이 1만1099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오유나기자

홈플러스, 창고대개방 '홈플러스 시즌2'...최대 80% 할인



홈플러스는 18일부터 31일까지 '홈플러스 시즌2'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31일까지 진행

이 행사는 홈플러스가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중 시행 중인 '물가안정 프로젝트' 일환으로 가게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했다. 소형 주방가전·건강식품·유아용품 등 6400여개에 이르는 각종 상품을 특가에 만날 수 있다.

건강식품 70여종을 비롯해 소형조리가전 80여종과 게임타이틀 100여종을 최대 80% 할인한다. 제과·음료 50여종과 커피·차 10여종, 안구 230여종, 컴퓨터 액세서리 160여종 등은 최대 70% 할인해 선보인다. 양말은 균일가에 1+1, 문구류는 균일가 990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18일부터 31일까지 '멤버특가 BEST10' 행사도 개최해 고객 선호도가 높은 10개 상품을 최대 50% 할인한 가격에 선보인다. 해당 할인 프로모션은 마이 홈플러스 회원에 대상으로 제공한다.

뉴스